

광양제철 수재슬래그 시설 승인...파문 일단락

광양시, 처리시설 최종 승인

포스코·운송업체 과태료

운송 중 침출수 처벌 강화키로

광양시가 광양제철소의 수재슬래그 처리시설을 최종 승인하고 운송중 침출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광양제철소 수재슬래그 사건이 일단락됐다.

24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광양제철소 수재슬래그 운송과정에서 지난 1월 발생한 낙수에 대한 처벌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한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또 시는 광양제철소 수재슬래그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차량에서 낙수된 물과 슬래그 탈수시설에서 발생한 시료를 채취해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분석을 의뢰했다. 이어 낙수가 침출수인지 폐수인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했다.

환경부는 질의회신을 통해 수재슬래그 운송중 낙

수된 물은 침출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사건 관련 기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과정 중 광양제철소는 고로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급랭해 수재슬래그를 생산하는 시설 총 10기를 폐기물관리법상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시는 지난 15일 위반행위자인 (주)포스코 관리책임자와 (주)포스코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하고 사건을 송치했다.

이와 함께 수재슬래그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낙수 행위는 수재슬래그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한 책임업체인 (주)포스코와 시설을 정비하는 업체 및 슬래그 운송업체에 대해 책임소재를 수사했다.

박종우 광양시 환경지도팀장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중점 착안한 사항으로, 수재 슬래그 운송중의 낙수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의 여부, 낙수된 침출수가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는지의 여

부, 환경부 유권해석 사례와 대법원 판례 등을 깊이 있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침출수의 성분은 구리가 0.006mg/L로 배출허용기준 대비 500분의 1 수준이고 시안은 0.03mg/L로 허용기준대비 33분의 1 수준으로 낮게 검출됐다.

수소이온지수는 9.0~9.28의 약알칼리성으로 나타났다며, 사건당일 차량에서 낙수돼 도로에 유출된 양이 약 50L로 소량으로 추정됐다.

환경부 유권해석 사례에서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침출수나 수소이온지수가 12.5이상의 강알칼리를 공공수역에 유출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해 처벌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그로 인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광양제철소의 낙수사건이 주변 환경에 오염을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시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낙수사건의 처리를 (주)포스코 법인의 경우 수재슬래그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로서 낙수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측을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운송업체의 경우 차량 운전원이 작업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인정함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앞서 광양제철소는 지난 2월 1일부터 수재슬래그 생산설비를 폐기물처리시설로 승인받기 위해 광양시와 사전 협의 거쳐 낙수행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시설 보완 대책을 마련해 지난 8일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15일 광양제철소 수재슬래그 처리시설에 대해 최종 설치를 승인했다.

서철형 광양시 환경과장은 "앞으로 광양제철소에 대한 환경관리를 보다 엄격히 적용해 수재 슬래그 운송중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환경 사범은 예외 없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29~31일 광양벚꽃문화제

음악회·공연 등 볼거리 풍성

봄을 유혹하는 빛깔의 향연, '제8회 광양벚꽃문화제'가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광양시 금호동 일원에서 펼쳐진다.

유리풍의 주택과 잘 어울리는 빛깔이 국내에서 보기 힘든 전원도 시 금호동을 물들이는 가운데 펼쳐지는 이번 문화제는 보는 이의 가슴을 꽃의 향기로 가득 채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호동은 3월 말부터 4월 초 만개한 벚꽃이 주택단지 전체를 뒤덮어 장관을 이루며 벚꽃을 만나려는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벚꽃개화시기에 맞춰 열리는 '광양벚꽃문화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로 인해 지역의 대표 꽃 문화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몇 해 전부터는 전국의 관광객들이 다투어 찾는 벚꽃 명소로 알려져 있다.

광양벚꽃문화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금호동 백운소평 내 조각공원 메인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행사는 상춘객을 유혹하기에 충분하다.

올해는 MC 김두수의 진행으로 결그를 라인업, '보약같은 친구' 진시몬, '남자의 정' 한태진, '청춘서울' 정하운, '사랑의 김치' 송채아, '바람속으로' 이예주, '내사랑 남버원' 김주아, '죄수지간' 송유나, '엔돌핀' 김동규 등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해 멋진 추억을 선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제3회 광양벚꽃축제디지털사진촬영대회', 솜사탕, 팝콘체험, 먹거리&체험부스 운영, 캐릭터 블록 만들기, 캐릭터 우드 만들기,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돼 오감을 만족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전국 최대 동백 특화림 조성

광양시 나무심기 행사 개최

광양시는 지난 21일 옥룡면 추산리 백계산 일원에서 전국 최대 동백 특화림 조성을 위한 '2019년도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나무심기 행사는 전국 최대 동백 특화림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산림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해 2ha 면적에 동백나무 1000여 주를 심었다.

시는 백계산 옥룡사지 동백 숲을 중심으로 국내 최대 동백 특화림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30억을 들여 매년 50ha씩 150ha의 동백나무를 심고 있다. 동백나무를 지속적으로 심어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2018년부터 동백나무 모목생산 대행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우량하고 건전한 모목의 안정적인 수급과 동백 숲의 전성성과 고수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개청 15주년 맞은 광양경제청 새 도약

김갑섭 청장 "올해 투자 실현 1조원·일자리 1800개 창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이 새롭게 도약한다.

김갑섭(사진) 광양경제청장은 개청 15주년을 맞아 "개발사업과 투자유치에 모든 역량을 쏟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취임한 김 청장은 "국내외 경기침체와 철강·화학 등 광양만권 주력산업 부진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올해 투자실현 1조원과 65개 기업, 1800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겠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취임식도 마다하고 가장 먼저 찾은 세풍산단은 외국인 투자지역 확장 지정으로 1단계 분양을 완료하고 2단계 조성사업 추진으로 고부가가치 기능성 화학소재 및 바이오화학 연관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입지가 뛰어난 세풍산단으로 FTA 플랫폼과 광양항을 활용한 외부기업을 유치하고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중심으로 미래 신성장산업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안이다.

중공을 앞둔 울촌산단은 이차전지의 핵심부품소재인 POSCO 양극재 생산공장에 이어 리튬, 니켈 생산공장을 추가로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차전지 전후방산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안이다.

해룡산단은 마그네슘을 비롯한 초경량 금속소재와 뿌리 산업 특화단지 조성하여, 제조업의 전후방 산업이 상호협력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청장은 "광양만권의 철강·석유화학 등 기존 주



력산업의 고도화와 4차 산업시대에 적합한 신산업의 집적화는 광양만권의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유일의 섬 해양복합관광단지인 미래에셋이 1조원 이상 국내의 자원을 유치해 아시아 최고 힐링 리조트로 개발될 경도와 관련 "경도 진입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 하반기 통과시켜 세계적 해양관광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 준공 예정인 하동지구 대송산단의 조기분양을 위해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원을 활용한 교육연구기관 유치 등으로 하동지구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각오다.

지난해 240만 TEU 물동량 실적을 거둔 광양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단순 창고 보관에서 가공과 제조 등 고부가가치 향만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광양항 인근 울촌, 세풍, 해룡산단까지의 투자유치 확대로 안정적 수출입 물동량 창출이 근본적이고 중요하다"며 "광양항의 탁월한 물류기반과 한중FTA를 활용한 외국기업 유치도 광양항 활성화의 중요한 요인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양경제청은 지난해 40개 업체, 8534억을 비롯해 2004년 개청 이래 337개사, 19조6950억원의 투자성과를 거뒀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망덕포구~배알도 현수교식 해상인도교.

<광양시 제공>

망덕포구~배알도 해상보도교 건설 착공

2021년 3월 완공

광양시는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중점 관광명승화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배알도-망덕포구 해상보도교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됐다고 밝혔다.

이번 현수교식 해상보도교는 길이 275m, 폭 3m 규모로 지난 해 8월 준공된 '배알도수변공원-배알도' 보도교에 이어 2021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13일 첫 삽을 떴다.

광양의 유일한 섬 '배알도'와 섬진강이 남해바다와 만나는 '망덕포구' 그리고 '수변공원' 등 낭만이 넘치는 플랫폼이 해상에서 선(線)으로 연결되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독특한 관광자원으로 크게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배알도를 중심으로 낭만적인 산책로를 갖춘

수변공원과 운동주 친필유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지켜낸 망덕포구의 역사가 이어지며 문화 예술이 흐르는 특별한 해상 로드가 펼쳐진다.

이어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망덕산 - 배알도수변공원 쥘라인이 올해 안으로 준공되면 망덕포구 일대는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역동적 통합관광벨트로 지역관광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현수교식 해상인도교가 준공되면 망덕포구-배알도-수변공원이 해상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관광자원이 탄생하게 될 것으로 본다"며 "망덕포구의 운동주 시(詩)거리와 배알도 수변공원 등 시(詩)와 낭만이 흐르는 섬진강에서 느끼게 사는 삶의 여유와 감성의 시간을 만끽할 기회"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TWIN STEEL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